

투데이

일관성 없는 農政 농민 불신 키운다

“지난해 재배 권장하더니 올엔 지원 제한” 빛나간 정부에 측에 분통...지자체도 당혹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사업을 축소하는가 하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워놓은 '농업·농촌 중장기 계획'조차 전방이 빛나기만하면서 현장에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눈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작물을 가공용 벼와 콩, 조사료로 제한했다. 대상 면적도 '쌀 재고'가 과소해 올해는 쌀 생산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4만ha)보다 3만

5000ha를 줄인 5000ha로 정했다.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안정을 내세우며 눈에 비 대신 약용작물, 콩,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권장하고 1ha당 300만원 현상에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혼선만 부추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는 눈에 감자, 고추, 배추, 옥수수 등을 심어도 지원해준다며 장려하더니 갑자기 올해는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전남도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맞춰 정부 지원 면적(8200ha)보다 1500ha를 늘린 9200ha를 목표로 세운 뒤 자체 지원금까지 확보,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왔던 탓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8200ha)의 8분의 1 수준인 1000ha에 대해서만 추진된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 중장기 계획조차 애초 목표에 못미치거나 빛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세운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대표적으로, 2013년까지 6ha이상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 전체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창한 계획은 현재 목표 달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5ha이상 전업농의 경우 지난 2009년 2만119호에 불과, 2013년에도 2만5770호에 불과할 것으로 국

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또 농업인 1인당 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달성은 커녕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의 격차가 더 확대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예산정책처 설명이다.

쌀 소비 정책도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2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쌀 가공산업에 투자해왔지만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kg에 불과해 전년보다 2.2% 줄었다. 통계를 작성한 197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박사는 “정부가 농업의 특성,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중장기 대책과 함께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탈북자 복송 반대하는 모델들 복송 중단 촉구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중국 정부의 탈북자 복송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레이싱 모델들이 참석해 탈북자 복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자 복송중단 촉구 순천시의회 정부 건의문

순천시의회는 5일 중국내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중국이 자국내 억류 탈북자 중 일부를 강제로 복송시킨 것은 인권유린 행위”라며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국제법상 난민대우를 통해 그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외교통상부 등 우리 관계기관도 중국내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라”며 “인권 문제는 이념이나 정략 위에 존재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기에 탈북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남 땅값 32개월째 오름세

토지거래도 늘어

지난해 전남지역 땅값과 토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토지 거래량도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내 땅값과 토지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땅값은 22개 전 시·군이 평균 0.94% 올랐고, 토지 거래량도 16만845필지로 전년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땅값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지난해 12월까지 32개월째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

고 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2.2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양(1.86%), 고흥(1.40%), 구례(1.10%), 해남(1.03%) 순이었다.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와 경도특구 개발 등이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또 광양은 이순신대교 개통 예정·산업단지 개발, 고흥은 연륙교 건설, 구례는 은퇴도시 건설·심진강 개발, 해남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화원국민관광단지 개발 등이 땅값을 올린 요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도 16만845필지에 2억6773만 8000㎡로 전년에 비해 늘었고, 면적도 6% 증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박람회 찾아가는 길 쉬워진다

도, 버스 증편·전세기 운항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

2012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를 찾아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5일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고, 중국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협의하는 등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

늘려 운행하고 여수~동광양 노선은 여수까지 16회 연장 운행한다. 또한 여수~순천·대진, 여수~광양~대진, 여수~동광양~동대구~구미 등 3개 노선을 신설해 노선별로 2회씩 총 6회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남 동부권 관광지의 연계를 위해 여수~구례~지리산 온천, 여수~구례~화암사, 여수~순천~순천만 등 3개 노선을 2회씩

연장 운행을 추진한다.

철도는 지난해 10월 용산~엑스포역 간 전라선이 복선 전철화됐고, KTX 개통으로 수도권 지역 관광객들의 이동도 편해졌다.

전남도는 또 중국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협약했으며, 여수~김포, 여수~제주 간 국내선·국제선 증편과 대형기 운항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발전재장은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했다”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운수 종사자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 4월 총선부터 선거범죄 양형기준 강화

오는 4·11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또 금품살포를 통한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행위로 양형기준을

높여 당선무효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 행위 금지위반 유형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과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6월까지 양형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거쳐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화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 65% “성직자 세금 부과 찬성”

종교자유권 1000명 설문

국민 대부분이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종교자유권센터원은 지난달 27일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7.3%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의 71.4%가 찬성했고 불교(69.8%)와 기독교(60.4%)가 뒤를 이었다.

현재 천주교 사제는 1994년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는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을 중심으로 목사의 세금 납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불교 조계종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스님 등 일부 성직자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2%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12.9%,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반대가 67.1%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정치인들이 종교종립적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6.2%로 ‘그렇다’는 의견 38.7%보다 다소 많았다.

종교 행사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30.9%가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52.9%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뻣뻣하게 될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콧물과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종-4738호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은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금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시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입장 (문채준) 010-5311-008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한도 - 300~7000만원
-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55만원미만)
-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영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상담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리의 천국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싹새래적용 선순위 대출금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 8 대표 1544-9430 | 상담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